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지식 조사

안청좌 · 김명철^{1†} · 김승균² · 한슬기³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물리치료전공, ¹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²자생한방병원 물리치료실, ³대전요양병원 수중운동팀

Study on Knowledge of the Elderly's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among College Students in Physical Therapy

Chung-Joa Ahn, PT, BS, Myung-Chul Kim, PT, PhD^{1†},
Seung-Kyun Kim, PT, MS², Seul-Ki Han, PT, PhD³

Major in Physical Therap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¹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Eulji University

²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Jaseng Hospital of Korean Eastern Medicine

³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aejeon Convalescent Hospital

Received: May 28, 2014 / Revised: July 30, 2014 / Accepted: August 1, 2014

© 2014 J Korean Soc Phys Med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qualitatively enhance physical therapy for them by analyzing Korean students' knowledge of the elderly.

METHODS: A total of 1027 male/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knowledge of the elderly. The knowledge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were investigated and measured by FAQ I of Palmore (1988) and a scale developed by Yunjin et al. (1982). T-test, One-way-ANOVA and Scheff test were used.

RESULTS: The percentage of the students who correctly answered the questions on the elderly was 53.6%. In particular, the higher error rates were seen in the social (56.9%) and psychological (57.6%) aspects compared in the physical (33.7%) aspects. Those who answered the questions correctly were over 30s (63.69%, $p=0.000$), seniors (57%, $p=0.000$) and grown in cities (53.91%, $p=0.001$). In addition, students who took lessons on the elderly (57.71%, $p=0.032$) and had experiences in voluntary services (54.09%, $p=0.023$)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answering the questions correctly.

CONCLUSION: When students learned about the elderly,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should be reinforced. The knowledge levels of the elderly can be elevated through voluntary services. It is thought that a follow-up study would be continuously needed to improve physical therapists' knowledge on the elderly and quality of available services.

Key Words: Elderly, Physical therapy, Knowledge

†Corresponding Author : ptkmc@eulji.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 과학, 사회, 의학 등의 발달로 인해 생활수준과 개인의 건강상태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한 나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약 20.8%로 초고령 사회에 각각 도달 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 없는 일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전되는데 115년, 14%에서 20%로 변화하는데에 40년이 걸렸고 미국이 각각 72년, 16년이 소요되었으며 영국은 47년과 44년, 독일도 40년과 38년이 그리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년과 7년이 걸려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8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고령인구의 의료기관 방문 비율도 높아져 진료비가 증가하였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2011년 15.4조 원으로 급증하였고 비율로 보면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1990년에는 8.2%였으나 2011년에는 33.3%를 점유하며 큰 변화를 나타냈다. 노인인구 대비 진료비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노인인구 비율은 5.6%로 증가하였고 노인진료비 비율도 25.1%로 증가하였다(Health Insurance Institute, 2012).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추이를 전망할 때 노인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전문적인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결국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문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되며 아울러서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만 한다. 병원이나 노인시설 등 현장

에서 이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건강관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분야와 대책으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영역으로서 대두되고 있다(Eom, 2004).

우리나라 노인은 90%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고(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 노인 건강-질병 특성은 평균 노인 1인당 2종류 이상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뇌혈관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Kim 등, 2004). 그중에서도 일상생활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은 139만 명(전체노인의 43.4%)이 넘고 또한 일상생활기능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11만명(3.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중에서 가족들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인의 37.3% 정도이고 나머지 62.7%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리치료는 장애를 최소화 하여 일상생활동작을 재교육시켜 사회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 요법과 도수 요법 및 운동치료로 통증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Kang, 2004). 만성질환 및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노화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대책은 남은여생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Jung, 2011).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고령 사회에서 물리치료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며 그에 따라 물리치료 분야의 주 환자 중 노인의 비율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치료사들은 노인의 특성에 따른 변화 및 문제에 대하여 보다 높은 지식수준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증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간호사들이 노화과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Sheffler, 1995). Lu IA (2008) 또한 요양 서비스는 인적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요양하는 자의 축적된 경험이나 인격뿐만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 전공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노인들이 제공받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Kim, 2001).

이러한 노화의 지식수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지만 주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리치료사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의료분야의 주축이 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 지식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며 연구를 통해 노화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물리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서 경기도권 에 소재한 8개 대학교(3년제, 4년제)의 물리치료학과 학생 총 102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이, 성별, 학년, 주요성장지역, 종교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노인과의 관련경험

노인과의 관련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인관

련 전공 및 교양강의 수강여부, 조부모의 생존여부,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여부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과 노인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Palmore (1980)의 FAQ I (the Facts on Aging Quiz I)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Yoon 과 Joo (1982)의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이 척도는 신체적 영역(11문항), 심리적 영역(6문항), 사회적 영역(7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iller와 Dodder (1984) 등의 지적에 따라 보다 분명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모르겠다”란을 삽입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를 선택해 표시하게 된다. 만약 응답자가 표시한 응답이 정답인 경우에는 1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측정할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이며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도구는 Yoon 과 Joo (1982), Yoo 등(2008), Choi (2008), Eom 등(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3. 자료수집

설문지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작 전, 후에 실시하거나 그 수업의 담당교수 또는 각 반대표에게 의뢰하여 집단조사로 실시한 후 회수하였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은 99%였고 문항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거나 불량하게 작성한 것을 제외하여 연구 자료에 사용된 질문지 수는 1027매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기술적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노인관련 경험에 따른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 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술 분석

본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	Contents	Physical therapy (n/%)
School	A university	273 (26.6)
	B university	153 (14.9)
	C college	244 (23.8)
	D woman college	99 (9.6)
	E college	46 (4.5)
	F university	47 (4.6)
	G Health College	108 (10.5)
	H college	57 (5.6)
Sex	Male	362 (35.2)
	Female	665 (64.8)
Age	20~23	763 (74.4)
	24~26	185 (18.0)
	27~29	44 (4.3)
	30~	14 (1.4)
Grade	Freshman	366 (35.6)
	Sophomore	323 (31.5)
	Junior	216 (21.0)
	Senior	122 (11.9)
Growth place	City	913 (88.9)
	Farming& Fishing village	114 (11.1)
Religion	Christianity	311 (30.3)
	Buddhism	74 (7.2)
	Catholic	83 (8.1)
	Etc	24 (2.3)
	None	535 (52.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총 1027명으로 우선 조사대상자의 학교별 분포를 보면 A대학교 26.6%(273명), B대학교 14.9%(153명), C대학 23.8%(244명), D여자대학 9.6%(99명), E대학 4.5%(46명), F대학교 4.6%(47명), G보건대학 10.5%(108명), H대학 5.6%(57명)로 총 8개 학교로 나누어지며,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64.8%(665명), 남학생이 35.2%(362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 수가 우세한 보건계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대 초반(20~23세) 74.4%(763명), 20대 중반(24~26세) 18.0%(185명), 20대 후반(27~29세) 4.3%(44명), 30대 이후(30~37세) 1.4%(14명)으로 20대 초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5.2%(366명), 2학년 31.5%(323명), 3학년 21.0%(216명), 4학년 11.9%(122명)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주요 성장지역 분포는 도시 88.9%(913명), 농어촌 11.1%(114명)으로 도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 분포는 기독교 30.3%(311명)가 무교 52.1%(535명)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천주교 8.1%(83명), 불교 7.2%(74명), 기타 2.3%(24명) 순으로 나타났다.

2. 노인관련 경험에 관한 기술 분석

본장에서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인관련 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On the presence of the elderly experience

Relevant experience in the elderly	Contents	Physical therapy (n/%)
Surviving grandparents	Existence	854 (83.2)
	nonexistence	173 (16.8)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Existence	570 (55.5)
	nonexistence	457 (44.5)
Volunteer for the Elderly	Existence	768 (74.8)
	nonexistence	259 (25.2)
Attend lectures related to the elderly	Existence	376 (36.6)
	nonexistence	651 (63.4)

Table 3.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the elderly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per item

Contents	Answer	Frequency (n/%)	Correct answers (Percentage)
Most of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Memory impairment, disorientation disorder, delirium increased, and the like.	Yes	231 (22.5)	No (64.5)
	No	662 (64.5)	
	Not sure	134 (13.0)	
5 senses of the body reaches old age (Sight, hearing, touch, smell, taste) to the decline of the function.	Yes	906 (88.2)	Yes (88.2)
	No	78 (7.6)	
	Not sure	43 (4.2)	
Most of the elderly have no interest in their sex life is not the ability.	Yes	76 (7.4)	No (70.5)
	No	724 (70.5)	
	Not sure	227 (22.1)	
Lung function in old age tends to be weakened.	Yes	830 (80.8)	Yes (80.8)
	No	94 (9.2)	
	Not sure	103 (10.0)	
Many elderly feel depressed most of the time.	Yes	357 (34.8)	No (49.7)
	No	510 (49.7)	
	Not sure	160 (15.6)	
Old age tends to decrease the physical strength.	Yes	963 (93.8)	Yes (93.8)
	No	42 (4.1)	
	Not sure	22 (2.1)	
Accommodate about 10% of the elderly in long-term (Eg, nursing homes, psychiatric hospitals, residential facilities, such as the elderly) to live.	Yes	647 (63.0)	No (15.7)
	No	161 (15.7)	
	Not sure	219 (21.3)	
Elderly drivers are young drivers is less than the number of accidents per capita.	Yes	198 (19.3)	Yes (19.3)
	No	396 (38.6)	
	Not sure	433 (42.2)	
Most of the workers are older than 65 years of age and young professionals who can not do the job more effectively.	Yes	415 (40.4)	No (43.6)
	No	448 (43.6)	
	Not sure	164 (16.0)	
65 and older, more than 50% of normal daily life is healthy enough to perform.	Yes	689 (67.1)	Yes (67.1)
	No	157 (15.3)	
	Not sure	181 (17.6)	
Most of the elderly can not adapt to the new changes.	Yes	239 (23.3)	No (63.7)
	No	654 (63.7)	
	Not sure	134 (13.0)	
Learning new things about the elderly are usually more youthful take longer time.	Yes	896 (87.2)	Yes (87.2)
	No	66 (6.4)	
	Not sure	65 (6.3)	

Contents	Answer	Frequency (n%)	Correct answers (Percentage)
The average elderly it is almost impossible to learn new things.	Yes	62 (6.0)	No (87.0)
	No	893 (87.0)	
	Not sure	72 (7.0)	
Elderly than younger people stimuli (eg, red light) for the reaction tends to be slower.	Yes	711 (69.2)	Yes (69.2)
	No	187 (18.2)	
	Not sure	129 (12.6)	
In general, the elderly are similar in all respects become like.	Yes	394 (38.4)	No (42.7)
	No	439 (42.7)	
	Not sure	194 (18.9)	
Most of the elderly are not boring and ago rarely says.	Yes	147 (14.3)	Yes (14.3)
	No	546 (53.2)	
	Not sure	334 (32.5)	
Most of the elderly have been socially marginalized.	Yes	699 (68.1)	No (23.6)
	No	242 (23.6)	
	Not sure	86 (8.4)	
65 years or younger workers than older workers have more accidents at work and occupational accidents and usually causes.	Yes	209 (20.4)	No (45.6)
	No	468 (45.6)	
	Not sure	350 (34.1)	
In Korea more than 10% of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 accounted for elderly people.	Yes	790 (76.9)	Yes (76.9)
	No	71 (6.9)	
	Not sure	166 (16.2)	
The majority of elderly poverty line (defined by the government) have less income.	Yes	586 (57.1)	No (21.2)
	No	218 (21.2)	
	Not sure	223 (21.7)	
Most of the elderly are doing housework or volunteer, etc. They want you to have a job.	Yes	875 (85.2)	Yes (85.2)
	No	48 (4.7)	
	Not sure	104 (10.1)	
The elderly are more religious with age tend to increase trust.	Yes	546 (53.2)	No (20.8)
	No	214 (20.8)	
	Not sure	267 (26.0)	
Most of the elderly are not readily say excited or angry.	Yes	196 (19.1)	Yes (19.1)
	No	625 (60.9)	
	Not sure	206 (20.1)	
Even in 2013 the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people when compared with the young now and will be about the same or worse.	Yes	455 (44.3)	No (36.6)
	No	376 (36.6)	
	Not sure	196 (19.1)	

1) 조부모 생존 유무
조부모의 생존 유무는 조사대상자의 83.2%(854명)

가 조부모가 살아 계심, 16.8%(173명)가 살아 계시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조부모가 살아 계신 대상자가 더

많았다.

2)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55.5%(570명)가 노인과 동거경험 있음, 44.5%(457명)가 동거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여 동거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았다.

3)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 유무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36.6%(376명)은 노인관련 강의 수강경험 있음, 63.4%(651명)은 경험 없음으로 응답하여 노인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약 2배 더 많았다.

4) 노인 대상 자원봉사경험 유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74.8%(768명)가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5.2%(259명)이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자원봉사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더 많았다.

3.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에 대한 기술 분석

1)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에 대한 정답률

조사대상자들의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은 전체 24점을 기준으로 평균 정답률 53.6%(12.96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을 측정함에 있어 정답, 오답, 잘 모르겠음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들에게 응답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앞의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정답률과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93.8%가 “노년기에 이르면 체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의 5가지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기능이 감퇴한다(88.2%).”, “노인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시간이 젊은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87.2%).”, “평균적인 노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87.0%).”,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가사일, 자원봉사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갖기를 원한다(85.2%).”의 순으로 문항에 대한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조사대상자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로서 오답률이 85.7% 이었으며, 그 외에 “적어도 노인의 약 10% 정도가 수용시설(예: 요양원, 정신병원, 노인 주거시설 등)에서 살고 있다(84.3%).”,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80.9%)”,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적다(80.7%)”,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종교를 믿으려는 경향이 늘어간다(79.2%).”의 문항 순으로 오답률이 높았다.

2)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 영역별 정답률

본 연구에서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신체적 영역은 11개 문항(1, 2, 3, 4, 6, 8, 9, 10, 12, 14, 18번), 심리적 영역은 6개 문항(5, 11, 13, 16, 22, 23번), 그리고 사회적 영역은 7개문항(7, 15, 17, 19, 20, 21, 24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영역별 지식 정답률은 다음 Table 4와

Table 4. Knowledge areas surveyed by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Contents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M±SD)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the elderly	Total Knowledge	53.6±13.2
	Physical Aspect	66.3±16.3
	Psychological	42.4±18.8
	Social Physical Aspect	43.1±18.7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적 지식의 정답률 66.3%, 사회적 지식의 정답률 43.1%, 심리적 지식의 정답률 42.4%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지식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4. 일반적 특성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와의 관계

본 장에서는 물리치료과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5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종교에 따른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 성장지역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과의 관계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특성에 따른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총 지식수준에서의 정답률에서는 30대 이후63.69%(15.29점), 20대 후반 60.98%(14.64점), 20대중반 54.34%(13.04점), 20대 초반 52.77%(12.67점) 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후가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고 20대 초반이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general characteristic and the elderly

General Characteristic	Contents	Physical Aspect		Psychological Aspect		Social Physical Aspect		Total Knowledge	
		M±SD	t/p	M±SD	t/p	M±SD	t/p	M±SD	t/p
School	A university	68.53± 14.54		44.57± 18.08		46.52± 18.66		56.12± 11.56	
	B university	65.95± 15.70		42.37± 20.23		41.27± 18.58		52.57± 13.70	
	C college	66.36± 17.11		43.44± 18.65		42.45± 17.31		53.65± 12.96	
	D woman college	69.24± 14.09	4.105/ 0.000**	45.12± 18.79	6.042/ 0.000**	44.59± 17.11	4.479/ 0.000**	56.02± 11.58	7.846/ 0.000**
	E college	64.82± 12.51	A,D > H	47.46± 12.65	A,B,C, D,E > H	45.96± 19.96	A,D,E > H	54.98± 9.73	A,B,C,D,E, F,G > H
	F university	64.99± 17.68		40.78± 19.60		40.73± 22.49		51.86± 15.59	
	G Health College	64.81± 19.66		37.04± 17.70		42.72± 19.19		51.43± 14.72	
	H college	57.10± 17.33		30.70± 19.10		32.83± 18.10		43.42± 14.50	
Sex	Male	65.47± 17.37	-1.270/ 0.204	42.86± 19.94	0.556/ 0.579	42.97± 19.44	-0.202/ 0.840	53.14± 14.60	-0.745/ 0.456
	Female	66.82± 15.68		42.18± 18.19		43.22± 18.27		53.78± 12.34	
Growth place	City	66.83± 16.19	2.721/ 0.007**	42.58± 18.57	1.246/ 0.213	43.42± 18.81	1.384/ 0.167	53.92± 13.05	2.524/ 0.012*
	Farming&Fishing village	62.44± 16.74		40.35± 20.67		40.85± 17.51		50.62± 13.93	

Religion	Christianity	68.08± 16.19		42.77± 18.41		43.68± 18.52		54.64± 13.14	
	Buddhism	64.74± 15.49		40.31± 20.27		41.31± 18.55		51.80± 13.71	
	Catholic	68.57± 13.27	2.165/ 0.071	44.38± 18.54	0.675/ 0.610	43.20± 17.85	0.256/ 0.906	55.27± 10.65	1.561/ 0.183
	Etc	63.26± 18.08		42.36± 14.73		42.26± 19.06		51.91± 12.89	
	None	65.35± 16.74		42.12± 19.07		43.10± 18.96		52.97± 13.47	
Age	20~23,a	65.63± 16.19		41.26± 18.10		42.60± 18.56		52.77± 12.90	
	24~26,b	66.93± 16.83	5.072/ 0.002**	44.50± 19.85	6.358/ 0.000**	43.01± 18.48	4.177/ 0.006**	54.34± 13.48	8.771/ 0.000**
	27~29,c	74.38± 14.04	d,c>b,a	50.76± 23.56	d>a	48.70± 18.82	d>b,a	60.98± 13.66	d>b,a c>a
	30~37,d	73.38± 14.90		53.58± 17.52		57.14± 21.70		63.69± 12.70	
Grade	Freshman	65.00± 15.80		39.25± 18.67		41.57± 18.38		51.61± 13.22	
	Sophomore	65.07± 16.86	5.612/ 0.001**	43.50± 18.27	5.733/ 0.001**	43.12± 18.87	1.813/ 0.143	53.28± 13.10	6.866/ 0.000**
	Junior	67.85± 16.86	4 > 1	44.68± 18.85	3,4 > 1	44.71± 18.44		55.30± 13.22	4 > 3 > 1
	Senior	71.09± 14.22		45.08± 19.60		45.08± 19.35		57.00± 12.23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8.771, p=0.000$).

다음으로 영역별 지식수준에서는 먼저 신체적 지식 영역에서 20대 후반 74.38%(8.18점), 30대 이후 73.38%(8.07점), 20대 중반 66.93%(7.36점), 20대 초반 65.63%(7.22점) 순으로 나타나 20대 후반에서 신체적 지식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초반에서 신체적 지식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5.072, P=0.002$). 심리적 지식영역에서는 30대 이후 53.58%(3.21점), 20대 후반 50.76%(3.05점), 20대중반 44.50%(2.67점), 20대 초반 41.26%(2.48점)의 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후에서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심리적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고, 20대 초반에서 심리적 지식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6.358, P=0.000$).

사회적 지식영역에서는 30대 이후 57.14%(4.00점),

20대 후반 48.70%(3.41점), 20대중반 43.01%(3.01점), 20대 초반 42.60%(2.98점)순으로 나타나 30대 이후에서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사회적 지식점수가 가장 높게 보였고, 20대 초반에서 사회적 지식점수가 가장 낮게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4.177, p=0.006$).

2) 학년특성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과의 관계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학년특성에 따른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 정답률은 1학년은 51.61%(12.39점), 2학년은 53.28%(12.79점), 3학년은 55.30%(13.27점), 4학년은 57.00%(13.68점)으로 나타나 4학년의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1학년의 지식수준이 가장 낮았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점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아주 높은 지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학년보다는 2학년이, 2학년보다는 3학년이, 3학년보다는 4학년이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6.866$, $p=0.000$).

다음으로 영역별 지식수준에서는 먼저 신체적 지식 영역에서의 정답률은 4학년 71.09%(7.82점), 3학년 67.85%(7.46점), 2학년 65.07%(7.16점), 1학년 65.00%(7.15점)의 순으로 나타나 4학년이 신체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1학년이 신체적 지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학년이 3학년보다, 3학년이 2학년보다, 2학년이 1학년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신체적 지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5.612$, $P=0.001$). 다음으로 심리적 지식 영역에서의 정답률은 4학년 45.08%(2.70점), 3학년 44.68%(2.68점), 2학년 43.50%(2.61점), 1학년 39.25%(2.36점) 순으로 나타나 4학년이 심리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1학년이 심리적 지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4학년이 3학년보다, 3학년이 2학년보다, 2학년이 1학년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심리적 지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5.733$, $p=0.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식영역에서의 정답률은 4학년 45.08%(3.16점), 3학년 44.71%(3.13점), 2학년 43.12%(3.02점), 1학년 41.54%(2.90점) 순으로 나타나 4학년이 사회적 지식수준이 가장 높고 1학년이 사회적 지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주요 성장지역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과의 관계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성장지역 특성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총 지식수준에서는 주요 성장지역이 도시인 경우 정답률이 53.91%(12.94점)이고, 농어촌인 경우 50.62%(12.15점)으로 나타나 주요 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들이 주요 성장지역이 농어촌인 조사대상자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총 지식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요 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들이 주요 성장지

역이 농어촌인 조사대상자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524$, $p=0.012$). 다음으로 영역별 지식수준에서는 신체적 지식영역에서의 정답률은 주요 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들이 66.83%(7.35점), 주요 성장지역이 농어촌인 조사대상자들이 62.44%(6.87점)로 나타나 주요 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들이 주요 성장지역이 농어촌인 조사대상자들보다 신체적 지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들이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 중 신체적 지식을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721$, $p=0.007$).

그러나 심리적, 사회적 지식영역에서는 주요 성장지역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노인관련 경험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물리치료과학생들의 노인관련 경험내용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관련 경험내용과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보면,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 수강,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에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조부모의 생존여부, 노인과의 동거 경험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 수강의 유무와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과의 관계

조사대상자들의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 수강의 유무와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과의 관계는 총 지식수준에서의 정답률을 보면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 수강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54.71%(13.13점)이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52.88%(12.69점)로 나타나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들보다 총 지식수준정도가 높게 나타

Table 6.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aged relationship

Relevant experience in the elderly	Contents	Physical Aspect		Psychological Physical Aspect		Social Physical Aspect		Total Knowledge	
		M±SD	t/p	M±SD	t/p	M±SD	t/p	M±SD	t/p
Surviving grandparents	Existence	65.90± 16.27	-1.930/	42.21± 18.67	-0.787/	42.81± 18.75	-1.252/	53.24± 13.00	-1.662/
	nonexistence	68.52± 16.33	0.054	43.45± 19.58	0.431	44.76± 18.35	0.211	55.07± 13.98	0.097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Existence	66.19± 16.70	-0.344/	42.34± 19.18	-0.156/	44.14± 18.64	1.918/	53.79± 13.30	0.181/
	nonexistence	66.54± 15.80	0.731	42.52± 18.39	0.876	41.89± 18.69	0.055	53.25± 13.05	0.512
Volunteer for the Elderly	Existence	66.70± 15.67	1.209/	43.27± 18.73	2.502/	43.75± 18.72	1.817/	54.09± 12.88	2.271/
	nonexistence	65.29± 18.03	0.227	39.90± 18.90	0.012*	41.31± 18.51	0.069	51.95± 13.93	0.023*
Attend lectures related to the elderly	Existence	67.55± 16.06	1.807/	43.66± 18.87	1.606/	43.99± 18.63	0.216/	54.71± 12.82	2.143/
	nonexistence	65.65± 16.41	0.071	41.71± 18.77	0.109	42.64± 18.72	0.262	52.88± 13.35	0.032*

나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143$, $p=0.032$).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의 유무와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과의 관계

조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유무와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총 지식수준과의 관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정답률이 54.09%(12.98점)이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51.95%(12.47점)으로 나타나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총 지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총 지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271$, $p=0.023$).

다음으로 영역별 지식수준에서는 심리적 지식영역에서의 정답률은 노인관련 교육이나 강의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43.27%(2.60점),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들이 39.90%(2.39점)으로 나타나 노인관련 교육이나 강의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심리적 지식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관련 교육이나 강의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 중 심리적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502$, $p=0.012$) 그러나 신체적, 사회적 지식영역에서는 노인에 대한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IV. 고 찰

1. 조사 대상자의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 대학생의 노인에 관한 지식 정답률은 51.8% (Choi 2011), 34.36% (Lu, 2004)였다. 그것과 비교하여 간호학과 학생은 52.3%,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53.0% (Choi, 2008)였다. 또한 Im (2004)에 따르면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정답률은 52.4%였고,

Yeom (2007)의 조사로는 간호사들의 지식 정도는 54.8%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전문 의료인력의 정답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은 전체 24점을 기준으로 평균 정답률 53.6% (12.96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Choi (2010)의 연구결과 대학생 집단들의 정답률이 51.8%,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i (2008)의 연구결과에서 간호과 집단이 52.3% 사회복지과 학생 집단이 53.0%의 정답률을 보였던 점과, Yeom (2007)의 중합병원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정답률이 54.8%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물리치료학과 학생 집단의 정답률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Lee (2011)의 연구에서 보고 된 요양보호사 집단의 정답률 49.5%과 Joo (2008)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정답률이 48.5%, 노인 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한 Park 등(2007)의 연구에서 보고 된 노인 병원 간호사들의 정답률 45.6% 이었던 점과, Kim (2007)의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정답률이 47.6% 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인 물리치료학과 학생 집단의 정답률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Lee (2003)의 연구에서 보고 된 노인복지전문가 집단의 62.0%, 노인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한, 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인지척도를 비교한 결과인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평균정답률 63.1%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정답률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나눠 살펴보면 신체적 지식의 정답률 66.3%, 사회적 지식의 정답률 43.1%, 심리적 지식의 정답률 42.4%의 순으로 나타나 신체적 지식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간호사, 의사,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08)의 연구, 그 외에 Yeom (2007), Choi (2006), Im (2004)의 연구에서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신체적 영역이 사회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 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

1) 연령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8.771$, $p=0.000$).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08)의 연구결과와는 동일하게 나왔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10)의 연구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온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2) 학년

학년에서는 고학년일수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6.866$, $p=0.000$).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08),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u (2004)의 결과와는 동일하게 나왔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10)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3) 주요성장지역

주요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들이 농어촌인 조사대상자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721$, $p=0.007$).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10)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주요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의 수가 현저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3. 노인관련 경험에 따른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

1) 노인관련 강의 경험

노인관련 전공 및 교양 강의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143$, $p=0.032$).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010), Eom (2009), Lu (2004)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노화 및 노인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271$, $p=0.023$).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학과 사회복지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010), Eom (2009), Lu (2004),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11)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 보다는 졸업인증제나 스펙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 중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총 지식수준과 심리적 지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 시 노인들과의 많은 대화와 접촉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리적 지식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었다. 물리치료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살펴보면 신

체적 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대한 지식수준이 낮는데, 이는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시간적 문제와 노인관련 강의 내용이 강사들의 선호 분야와 전문성에 따라 일부 영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관련 교육과정에 신체적 노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 보다는 졸업인증제나 스펙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 중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총 지식수준과 심리적 지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 시 노인들과의 많은 대화와 접촉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리적 지식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관련 봉사활동은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셋째, 주요성장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에서 주로 성장해온 조사대상자들이 농어촌에서 성장한 경우 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요성장지역이 도시인 조사대상자의 수가 현저히 많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별에 따른 결과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 역시 보건대학의 특성상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정확히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노인동거경험의 따른 태도에서는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에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동거경험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면이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리치료학과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의 개선,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References

- Choi KA.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Ewha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6.
- Choi YD. A study on attitudes and knowledge of the elderly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and social work.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Dissertation of Doctor's Degree. 2008.
- Choi Y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aged.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1.
- Eom IS. Study on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 toward old peopl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0.
- Eom KM. Functional performance in older adults. Yeongmunsa. 2004.
- Erdman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a review of findings. *Gerontologist*. 1980;20(6):669-72.
- Im Y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2.
- Health Insurance Institute. Implementation of this health insurance statistics 35 years. 2012. 1-16.
- Joo SO. A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f the nursing student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8.
- Jung KH.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Health and Welfare Forum*. 2011;172: 18-27.
- Kang JH. Status of physical therapy demand of the elderly and the improvement sugges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4.
- Kim KP, Kim NC, Kim JH et al. The concept analysis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JKAN*, 2004;34(7): 1172-83.
- Kim MH. Baccalaureate Social Work Student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EWHA womans University-Social Science Research Publications*. 2002;8(1):1-11
- Kim MH.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the home helpers. *JWA*. 2007;37(1): 203-24.
- Kim SY. Care workers' knowledge and attitude on older adults. Graduate School of Chonbuk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9.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 1998. 30-7.
- Lee HJ.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mong nurse, doctor, care-helper.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1.
- Lee YJ. Impact of aging knowledge on attitude to clients in care workers.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11.
- Lee YM. Study on welfare professional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Ewha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3.
- Lu HS. College students' knowledges about aging and their attitudes toward elderlies.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4.
- Lu IA. A Study of geriatric care hlper's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8.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lderly statistics.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8-17.
- Park HS, Seo SL, Kim SH.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use of negative control maintenance techniques toward older adults among nurses working

- in geriatric hospitals. KJAN. 2007;19(4):614-23.
- Richard B. Miller, Richard A. Dodder. An empirical analysis of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and the miller-dodder revision. Sociological Spectrum. 1984;4(1):53-69.
- Sheffler SJ. Do clinical experiences affect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5;34(7):312-6.
- Yeom MJ.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nurses about the aged.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Dissertation of Master's Degree. 2007.
- Yoo JS, Ahn HM, Park CG et al.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8;22(1):108-20.
- Yoon J, Jo SM. The Gyongsan facts-aging quiz - an edumetric approach. KGS. 1982;2(1):5-15.